





# 우리 민족의 후손만대와 더불어 길이 빛나리

## 백두밀림은 오늘도 혁명의 폭풍을 부른다

### 명곡 《밀림이 설레인다》에 대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항일의 빛나는 혁명전통은 우리 당과 혁명의 역센 뿌리이며 만년초석입니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웅위하며 아득히 펼쳐진 밀림이 붉은기대오가 나아간다. 파도를 헤가르는 전투함선마냥 백두밀림을 헤쳐가는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에 노래 《밀림이 설레인다》가 울려 퍼지고 있다.

항일무장투쟁사를 아로새기었다. 백두의 천연수림을 중흥무진하는 조선인민혁명군을 두고 일제는 어리석게도 《창해일숙》이라고 하였지만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께서는 그 한알의 《날알》로 세찬 격랑을 일으키시었다. 보천보전투와 간삼봉전투, 무산지주전투의 총성도, 승전의 나팔소리도 백두밀림은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백두의 밀림이 민족의 태양이 솟아오른 때로부터 그분받처럼 감싸안던 인민의 가슴속에 빨찌산전설은 등불이 되었고 희망이 되었다.

김일성장군님의 손길이 가닿으면 솔밭을도 총알이 되어 왜놈의 숨통을 끊어 놓는다. 김일성장군님은 종이 한장으로도 수만군사를 강건네신다를 비롯한 신비스러운 전설이 조국방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다.

어 싸우는 길에 해방의 봄은 반드시 온다. 절때불변의 신념과 믿음이었으며 사령부의 안명을 지키는 길에 혁명전사의 값높은 삶이 있다는 혁명적인생관이었다. 백두의 밀림속 그 어느 골짜기에도 항일의 혁명선열들의 넋이 깃들지 않은 곳이 없었다. 백두의 칼바람을 맞으며 허리치는 눈속을 한치한치 헤쳐나가다가도 사령부로 달려드는 일제놈들의 총성이 울려 퍼지는 한몸이 그대로 방패가 되어 눈물을 맞받아 달려온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었으며 적탄에 맞아 선혈을 흘리면서도 기어 사령관동지의 품을 찾아온것이 투사들의 불굴의 정신력이었다.

항일혁명선열들이 발휘한 수령결사옹위의 하마는 사연들이 속속들이 숨어버여 백두의 밀림은 그대로 투사들이 높이 추켜 올렸던 수령결사옹위의 총대처럼 우리 가슴에 안겨오고 지동치는 백두의 폭풍은 수령결사옹위의 폭풍으로 우리의 심장에 휘몰아치는 것이다. 하기에 백두밀림에서 우두봉을 피우며 뜻깊은 한밤을 보낸 답사행군대원들 누구나 항일의 나날 실현풍이 휩쓰는 힘찬 산중에서 오직 위대한 수령님만을 굳게 믿고 모든 고난을 이겨내던 투사들의 모습이 생생히 떠올라 잠을 이룰수 없었다. 또 절절히 이야기하는 것이다.

밀림이 설레인다 파도처럼 설레인다 백두의 밀림이 파도처럼 설레인다 김일성장군님의 그 이야기 전하며 밤이나 낮이나 끝없이 설레인다 ...

명곡 《밀림이 설레인다》가 창작된 때로부터 어느덧 45년세월이 흘렀다. 창작되자마자 초소와 일터의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을 무한히 격동시킨 이 명곡은 세기를 이어가는 백두의 행군길에 오늘도 울려 퍼지고 있다.

우리 인민들은 백두의 밀림을 한갓 자연의 수림으로만 대하지 않는다. 너무나 하찮은 사연을 품어안고있는 백두의 밀림은 우리에게 있어서 조선혁명의 뿌리가 되고 김일성장군님의 새로운 탄생의 고고성이 울린 력사의 터전, 항일무장투쟁의 피 어린 자욱자욱들을 장엄한 서사시나 교향곡으로 끝없이 노래할수 있는 명작창조의 토양과도 같다. 항일혁명의 위대한 역사를 품어안은 백두밀림은 《밀림이 설레인다》와 같은 훌륭한 명곡을 낳아 이 나라 아들딸들에게 귀중한 혁명유산으로 안겨주었다.

《사령부 지켜싸운 그날의 총소리 밀림에 차고넘쳐 소리높이 설레인다》는 명곡의 구절을 새기며 백두밀림을 행군하느라면 사령관동지를 결사옹위한 항일혁명선열들의 넋과 숨결이 가슴후딴씩 울려 퍼진다.

《수령님 지켜싸운 그날의 총소리 밀림에 차고넘쳐 소리높이 설레인다》는 명곡의 구절을 새기며 백두밀림을 행군하느라면 사령관동지를 결사옹위한 항일혁명선열들의 넋과 숨결이 가슴후딴씩 울려 퍼진다.

《수령님 지켜싸운 그날의 총소리 밀림에 차고넘쳐 소리높이 설레인다》는 명곡의 구절을 새기며 백두밀림을 행군하느라면 사령관동지를 결사옹위한 항일혁명선열들의 넋과 숨결이 가슴후딴씩 울려 퍼진다.

《수령님 지켜싸운 그날의 총소리 밀림에 차고넘쳐 소리높이 설레인다》는 명곡의 구절을 새기며 백두밀림을 행군하느라면 사령관동지를 결사옹위한 항일혁명선열들의 넋과 숨결이 가슴후딴씩 울려 퍼진다.

《수령님 지켜싸운 그날의 총소리 밀림에 차고넘쳐 소리높이 설레인다》는 명곡의 구절을 새기며 백두밀림을 행군하느라면 사령관동지를 결사옹위한 항일혁명선열들의 넋과 숨결이 가슴후딴씩 울려 퍼진다.

《수령님 지켜싸운 그날의 총소리 밀림에 차고넘쳐 소리높이 설레인다》는 명곡의 구절을 새기며 백두밀림을 행군하느라면 사령관동지를 결사옹위한 항일혁명선열들의 넋과 숨결이 가슴후딴씩 울려 퍼진다.

《수령님 지켜싸운 그날의 총소리 밀림에 차고넘쳐 소리높이 설레인다》는 명곡의 구절을 새기며 백두밀림을 행군하느라면 사령관동지를 결사옹위한 항일혁명선열들의 넋과 숨결이 가슴후딴씩 울려 퍼진다.

《수령님 지켜싸운 그날의 총소리 밀림에 차고넘쳐 소리높이 설레인다》는 명곡의 구절을 새기며 백두밀림을 행군하느라면 사령관동지를 결사옹위한 항일혁명선열들의 넋과 숨결이 가슴후딴씩 울려 퍼진다.

《수령님 지켜싸운 그날의 총소리 밀림에 차고넘쳐 소리높이 설레인다》는 명곡의 구절을 새기며 백두밀림을 행군하느라면 사령관동지를 결사옹위한 항일혁명선열들의 넋과 숨결이 가슴후딴씩 울려 퍼진다.

《수령님 지켜싸운 그날의 총소리 밀림에 차고넘쳐 소리높이 설레인다》는 명곡의 구절을 새기며 백두밀림을 행군하느라면 사령관동지를 결사옹위한 항일혁명선열들의 넋과 숨결이 가슴후딴씩 울려 퍼진다.

《수령님 지켜싸운 그날의 총소리 밀림에 차고넘쳐 소리높이 설레인다》는 명곡의 구절을 새기며 백두밀림을 행군하느라면 사령관동지를 결사옹위한 항일혁명선열들의 넋과 숨결이 가슴후딴씩 울려 퍼진다.

《수령님 지켜싸운 그날의 총소리 밀림에 차고넘쳐 소리높이 설레인다》는 명곡의 구절을 새기며 백두밀림을 행군하느라면 사령관동지를 결사옹위한 항일혁명선열들의 넋과 숨결이 가슴후딴씩 울려 퍼진다.

《수령님 지켜싸운 그날의 총소리 밀림에 차고넘쳐 소리높이 설레인다》는 명곡의 구절을 새기며 백두밀림을 행군하느라면 사령관동지를 결사옹위한 항일혁명선열들의 넋과 숨결이 가슴후딴씩 울려 퍼진다.

《수령님 지켜싸운 그날의 총소리 밀림에 차고넘쳐 소리높이 설레인다》는 명곡의 구절을 새기며 백두밀림을 행군하느라면 사령관동지를 결사옹위한 항일혁명선열들의 넋과 숨결이 가슴후딴씩 울려 퍼진다.

《수령님 지켜싸운 그날의 총소리 밀림에 차고넘쳐 소리높이 설레인다》는 명곡의 구절을 새기며 백두밀림을 행군하느라면 사령관동지를 결사옹위한 항일혁명선열들의 넋과 숨결이 가슴후딴씩 울려 퍼진다.

《수령님 지켜싸운 그날의 총소리 밀림에 차고넘쳐 소리높이 설레인다》는 명곡의 구절을 새기며 백두밀림을 행군하느라면 사령관동지를 결사옹위한 항일혁명선열들의 넋과 숨결이 가슴후딴씩 울려 퍼진다.

《수령님 지켜싸운 그날의 총소리 밀림에 차고넘쳐 소리높이 설레인다》는 명곡의 구절을 새기며 백두밀림을 행군하느라면 사령관동지를 결사옹위한 항일혁명선열들의 넋과 숨결이 가슴후딴씩 울려 퍼진다.

《수령님 지켜싸운 그날의 총소리 밀림에 차고넘쳐 소리높이 설레인다》는 명곡의 구절을 새기며 백두밀림을 행군하느라면 사령관동지를 결사옹위한 항일혁명선열들의 넋과 숨결이 가슴후딴씩 울려 퍼진다.

《수령님 지켜싸운 그날의 총소리 밀림에 차고넘쳐 소리높이 설레인다》는 명곡의 구절을 새기며 백두밀림을 행군하느라면 사령관동지를 결사옹위한 항일혁명선열들의 넋과 숨결이 가슴후딴씩 울려 퍼진다.

《수령님 지켜싸운 그날의 총소리 밀림에 차고넘쳐 소리높이 설레인다》는 명곡의 구절을 새기며 백두밀림을 행군하느라면 사령관동지를 결사옹위한 항일혁명선열들의 넋과 숨결이 가슴후딴씩 울려 퍼진다.

《수령님 지켜싸운 그날의 총소리 밀림에 차고넘쳐 소리높이 설레인다》는 명곡의 구절을 새기며 백두밀림을 행군하느라면 사령관동지를 결사옹위한 항일혁명선열들의 넋과 숨결이 가슴후딴씩 울려 퍼진다.

# 백두산호랑이

이 나라 천만산골기를 품어안고 거연히 솟아 백설을 휘날리는 조종의 산 백두산! 아득한 태고적에 용암의 분출과 함께 솟구쳐 올라 민족의 유구성을 년봉으로 새기며 이 땅의 흥망성쇠를 지켜오던 백두산은 나라의 인민모두가 신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신비한 전설이 깃들게 된 것은 과연 언제부터였는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항일의 태양의 총성을 높이 울리신 그때부터, 왜적의 총칼밑에 신음하던 이 땅을 구해 줄 진정한 주인공이 등장한 그때부터 백두산은 우리 수령님의 태양의 존함과 더불어 겨레의 투쟁과 존엄의 상징으로, 혁명의 성산으로 그 이름 더욱 자랑높게 되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하다는 말만 가지고서는 우리 수령님의 위대성을 다 표현할수 없습니다. 우리 수령님은 하늘이 뉘는이시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백두산이 뉘는 전설적 명장, 회색의 청년장군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사모하는 그날에 벌써 《백두산호랑이》라는 부름으로 온 세상에 명성이 자자하시었다.

백두산호랑이! 불러만 보아도 백두의 메뚜리가 떠오르고 호랑이가 앞발을 쳐들고 천하를 굽어보며

《백두산호랑이! 이것은 단순히 문학작품에서의 형상적비유가 아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투쟁하는 나날에 그의 천출위신상에 끝없이 매혹되어 온 항일혁명투사들과 우리 인민의 진실하면서도 깊이있는 생활체험의 산물이다. 백두산호랑이!》

정경 포악성으로 악명높던 삼도왜적을 유약한 곳집승의 무리인양 드러내며 멸망의 나락으로 몰아가신 항일의 전설적영웅 김일성동지의 기상은 우리 인민이 예로부터 수호신처럼 숭상해온 백두산호랑이의 바로 그것이었다.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백두산을 주름잡으시며 원수 일제를 전멸케 하시는 우리 수령님에 대한 인민들의 절대적신뢰는 수많은 전설들을 낳았다. 항강에서는 백두산중의 깊은 동굴속에서 백두산호랑이가 활활 날아다니는 수많은 세계호랑이들을 길러냈다는 전설이 나도는가 하면

《파옹》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유명한 혁명시인인 조기천의 장편서사시 《백두산》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 쉬-쉬- 바위위에 호랑이 나섰다 백두산호랑이가 나섰다 앞발을 거세게 내어뻛치고 남쪽하늘 노려보다가 《파-옹-》 산골을 깨친다 그 무엇 쳐부시련듯 몸을 들어 《파-옹-》 그리곤 휘파람속에 감추인다 바위 호를로 솟아 이끼에 바람만 스치어도 호랑이는 바위에 서고있는데 내 정신 가다듬어 들노라- 다시금 휘파람소리 들릴지 산흔을 뒤집어 펴지는 그 노호소리 다시금 들릴지! ...

백두산호랑이! 이것은 단순히 문학작품에서의 형상적비유가 아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투쟁하는 나날에 그의 천출위신상에 끝없이 매혹되어 온 항일혁명투사들과 우리 인민의 진실하면서도 깊이있는 생활체험의 산물이다. 백두산호랑이!》

정경 포악성으로 악명높던 삼도왜적을 유약한 곳집승의 무리인양 드러내며 멸망의 나락으로 몰아가신 항일의 전설적영웅 김일성동지의 기상은 우리 인민이 예로부터 수호신처럼 숭상해온 백두산호랑이의 바로 그것이었다.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백두산을 주름잡으시며 원수 일제를 전멸케 하시는 우리 수령님에 대한 인민들의 절대적신뢰는 수많은 전설들을 낳았다. 항강에서는 백두산중의 깊은 동굴속에서 백두산호랑이가 활활 날아다니는 수많은 세계호랑이들을 길러냈다는 전설이 나도는가 하면

《백두산호랑이! 이것은 단순히 문학작품에서의 형상적비유가 아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투쟁하는 나날에 그의 천출위신상에 끝없이 매혹되어 온 항일혁명투사들과 우리 인민의 진실하면서도 깊이있는 생활체험의 산물이다. 백두산호랑이!》

정경 포악성으로 악명높던 삼도왜적을 유약한 곳집승의 무리인양 드러내며 멸망의 나락으로 몰아가신 항일의 전설적영웅 김일성동지의 기상은 우리 인민이 예로부터 수호신처럼 숭상해온 백두산호랑이의 바로 그것이었다.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백두산을 주름잡으시며 원수 일제를 전멸케 하시는 우리 수령님에 대한 인민들의 절대적신뢰는 수많은 전설들을 낳았다. 항강에서는 백두산중의 깊은 동굴속에서 백두산호랑이가 활활 날아다니는 수많은 세계호랑이들을 길러냈다는 전설이 나도는가 하면

얼마전 개선문광장을 지나던 나는 역사적인 화폭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주제 34(1945)년 10월 14일 평양시환경운동대회에서 연설하시는 불멸의 화폭을 담은 대형기념화, 벽화에 형상된 한명 한명의 모습들에서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온 겨레의 열화같은 품모심을 후련게 안아보던 나의 시선은 한곳에서 멎어 있었다.

당산에 서있을 때 나를 지배한것은 그 어떤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도 그려낼수 없는 행복감이었습니다. 내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어느 때였는가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순간이었다고 대답할것입니다. 1945년 10월 14일

뜻깊은 개선문에서 반신 열광의 환호를 인민의 크나큰 신뢰로 무겁게 간주하신 우리 수령님이시기에 한평생 인민의 기대를 새기시며 인민을 위해 자신을 강그러 버치시었다. 그의 로고와 더불어 이 땅 위에 솟아난 로동당시대의 창조물들이 주마등마냥 나의

이런 위대한 수령, 위대한 어버이를 천만년세월이 흐르든 어찌 잊을수 있으랴. 하기에 우리 인민은 날이 갈수록 어버이수령님의 그 은덕을 더욱 가슴깊이 새기며 수령님의 넋대로 이 땅 위에 주제의 김일성장군님의 개선을 일일천추로 고대하고있었다.

# 온 민족은 해방의 은인을 기다렸다

주제 34(1945)년 8월의 조산은 해방의 열기로 끓어번졌다. 삼천리를 뒤흔드는 감격의 열풍속에서 인민은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의 개선을 일일천추로 고대하고있었다.

일제의 발골밑에 신음하는 겨레의 운명을 구원하시러 20성상 항일의 불바다, 피바다를 헤쳐오신 전설적영웅, 끝끝내 삼천리강토에 해방의 새봄을 안아오신 절세의 애국자 김일성장군님을 기다리시는 인민의 간절한 마음은 한결같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사실 우리는 요란스러운 환영군중대회를 통해 인민들과 상봉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디다. 그런데 국내인사들과 나의 전우들이 한사코 그런 큰 규모의 행사를 주장하고 고집하였습디다.》 그것은 3천만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였다. 김일성장군님의

조국개선을 전제없는 민족적경사로 맞이하려하는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는 민심이였다.

평양은 김일성장군님의 입성을 기다리느라고 밤에도 잠들지를 못했다. 평양시와 평안남도, 평안북도의 각계층 대표들이 《김일성장군 환영준비위원회》를 맺고 위대한 수령님을 영광의 단상에 높이 모시기 위한 준비를 서둘렀으며 대동군인민들은 수령님께서 나서자리신 만경대에서 그이를 제일 먼저 맞이하게 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긍지를 안고 《김일성장군환영학도준비위원회》를 따로 조직하였다. 서울에서도 려운형, 허헌, 홍명희를 비롯한 명망 높은 인사들이 《김일성장군환영준비위원회》를 맺고 민족의 영웅 김일성장군님을 환영하기 위한 여러가지 성대한 준비사업을 벌였다.

서울역전은 매일같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울에 입성하신다는 소문을 들은 그 손에 손에 축하의 꽃무늬와

프랑카드를 들고 달려나온 사람들이 역전광장으로 몰릴듯이 모여들었다. 3천만의 심장은 김일성장군님께서 개신하시던 순간을 향해 숨가쁘게 고동치고 있었다.

드디어 온 민족이 기다려온 영광의 시각이 박두해왔다. 김일성장군님께서 평양에 입성하시였으며 10월 14일 공설운동장에서 인민들과 상봉하신다는 글씨가 나붙은 곳마다에서 사람들의 환성이 터져올랐다.

주제 34(1945)년 10월 14일 평양시환경운동대회가 열리는 평양공설운동장은 사람바다를 이루었다. 운동장밖의 나무뿌대기들도 사람들이 울라가있었고 최승대와 울림대쪽에도 사람들이 하얗게 덮여 있었다.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께서 연단에 나서시자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는 군중들의 함성과 환호성은 고조에 달하였다. 당시의 《평양보도》는 그날의 정경에 대하여 이렇게 전하

# 꽃다발

평양공설운동장에서 폭발한 민중의 환호성은 조국과 겨레를 위해 우리가 겪어온 반생의 간난신고에 대한 표창이고 답례였다고 말할수 있다고, 나는 그 답례를 나에 대한 인민의 사랑과 신뢰로 받아들이었다고 하신 우리 수령님의 뜨거운 회고의 글줄이 되새겨질수록 생각이 깊어졌다.

꽃다발, 이 세상에 우리 수령님처럼 인민이 드린 소박한 꽃다발, 인민의 환호성을 최고의 표창으로 여긴 그런 정치가 있었던가.

눈앞에 비껴들었다. 그 하나하나를 그대로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인민에게 안겨주시는 가장 아름답고 진귀한 꽃송이들이 아니던가.

그 무수한 꽃송이들이 대화원을 이룬 조국강산을 굽어볼수록 우리 수령님께서 해방된 인민의 그날 자신께서 받으신 소박한 꽃다발의 한송이 한송이 꽃들을 회한한 창조물들에 대해 고스란히 안겨주시었구나 하는 생각으로 눈금이 찌릿해졌다.

이런 위대한 수령, 위대한 어버이를 천만년세월이 흐르든 어찌 잊을수 있으랴. 하기에 우리 인민은 날이 갈수록 어버이수령님의 그 은덕을 더욱 가슴깊이 새기며 수령님의 넋대로 이 땅 위에 주제의 김일성장군님의 개선을 일일천추로 고대하고있었다.

일제의 발골밑에 신음하는 겨레의 운명을 구원하시러 20성상 항일의 불바다, 피바다를 헤쳐오신 전설적영웅, 끝끝내 삼천리강토에 해방의 새봄을 안아오신 절세의 애국자 김일성장군님을 기다리시는 인민의 간절한 마음은 한결같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사실 우리는 요란스러운 환영군중대회를 통해 인민들과 상봉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디다. 그런데 국내인사들과 나의 전우들이 한사코 그런 큰 규모의 행사를 주장하고 고집하였습디다.》 그것은 3천만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였다. 김일성장군님의



백두의 혁명전통이 빛나게 계승되고 있는 김일성, 김정일 조선은 영원히 강성번영 할 것이다. 본사기자 찍음

# 8.15해방을 맞던 환희와 기세로 민족의 완전한 자주독립과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성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

##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 성명

1945년 8월 15일 조국해방의 환희성이 삼천리강산을 진감하였던 감격의 그날로부터 69년의 세월이 흘렀다. 긴박한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끝내고 우리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새로운 역사적 전환의 시대를 열어놓은 뜻깊은 이날을 맞으며 온 겨레는 조국해방투쟁을 이룩하신 절세위인인 김일성대원수님의 애국헌신의 자유자유의 가슴뜨겁게 돌이켜보았다. 3.1만세의 함성도, 독립군과 광복군의 의분과 《상해협정》의 우곡지심도 일제의 야만적인 총칼통치에 실체와 좌절을 면치 못하던 암담한 시기에 손에 무장을 잡으시고 백두의 설한봉을 헤치며 조국해방투쟁의 최후승리를 이룩하신분은 만고절세의 애국지사이고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대원수님이시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환호에 지니시고 간고하고 험난한 항일투쟁을 승리에 이끌고 우리 겨레는 그처럼 바라던 민족해방의 광휘로운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다. 백두산 줄기출기, 압록강 굽이굽이에 력력히 आरो세겨져있는 김일성대원수님의 애국, 애족, 애민의 피어린 력사와 조국해방의 위대한 업적을 반민족적분자와 더불어 후손대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력사의 그날로부터 세월은 멀리 흐르고 세대는 여러번 바뀌었다. 하지만 애국선열들이 합일성전에 한복속 서있어 바치며 그토록 갈망하였던 조국의 완전한 자주독립은 아직 이룩되지 못하였다. 조국의 남반부에서 일제의 강점 40여년 이 미제의 강점 70년으로 이어지면서 전 조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완전해방, 민족의 자주권을 성취하지 못하였으므로 외세가 강

요한 장기간의 민족분열로 하여 우리 겨레는 참을 수 없는 고통과 비극을 겪고있다. 해방후 남조선은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세계제국을 실현하기 위한 침략의 교두보로, 극동최대의 군사기지로서 전략시진 미국군과 전조선반도를 타고있으며 동북아시아지역에 대한 패권과 군사적지배를 확립하기 위해 더욱 기세를 부리고있다. 사태와 굴곡에 물젖은 력대 남조선의 친미보수(정권)은 미국의 들켜대, 허수아니가 되어 동족대결과 북침전쟁을 추구하며 민족내부의 분신과 대립을 격화시키고 온 겨레의 절절한 념원인 조국통일을 한사코 가로막아왔다. 이 시각도 남조선의 친미보수세력에 의해 지난 시기 북남사이에서 이룩된 귀중한 합의들과 결실들이 무참히 짓밟히고 조선반도에는 군사적긴장의 악순환속에서 썩어 썩어 무겁게 떠돌고있다. 이러한 엄중한 사태를 타개하고 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놓기 위하여 우리는 올해 력사적인 신년사를 받들어 국방위원회 중대제안과 특별제안, 공화국정부 성명 등을 통해 북남관계개선을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것임을 단언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의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손길을 뿌리고 외세추종과 동족대결정책에 매달리는 남조선당국에 의해 북남관계개선의 길은 좁아져서 멀어지고 조선반도정세는 전쟁경계로 계속 치닫되고있다. 조선독립을 위해 피를 뿌린 수많은 애국선열들이 일제의 식민지통치기간의 거의 두배나 되는 긴긴 세월 우리 민족이 북과 남으로 갈라져 원수처럼 등지고 살아가는

오늘의 비극적현실을 본다면 분노에 땅을 치며 저주할것이다. 그 어떤 역경과 장애가 가로놓여도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기어이 실현하려는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념원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절절한 요구가 더욱 뜨겁게 분출하는 이번 8.15를 계기로 북남관계에서 전환적국면을 열어 놓으려는 우리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우리는 민족의 분열과 고통의 화근을 제거하고 화해와 단합, 통일을 이룩해나가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여 남조선당국이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1. 조선반도에서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끝내야 한다. 해방후 폐망한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구실로 남조선에 불법강점하여 우리 민족을 들로 갈라놓은 장본인도 미국이며 온 겨레가 바라는 조국통일을 한사코 가로막고있는 주체는 외세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동서맹정이 종식된지 2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 미국이 남조선에 강점하고 주인노릇을 해야 할 어떤 명분도 구실도 없다. 지구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사태를 하루속히 끝내야 한다. 조선반도에서 《비정상의 극복》은 바로 미국의 남조선강점과 지배를 끝내는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통일의 양적조건인 미국이 남조선에 타고앉아 모든것을 좌우하고있는 조선에서 북남관계를 중립적으로 개선해나갈수 없고 언제까지나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수 없다. 미국의 승인이 없는 어떤 결정도 내릴수 없는 남조선위정자들의 처지에서 《남과 북이 만들어가는 통일시대》란 과연

가능할수 있겠는가. 남조선당국은 세기와 년대를 이어 지속되고있는 미국의 지배와 간섭에서 벗어날 용단을 내리야 한다.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은 철수하여야 하며 남조선당국은 미국적인 외세의존정책을 버려야 한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미국의 품에서 떨어져나와 성스러운 민족의 대오에 들어서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문제,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갈것을 촉구한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긴장완화를 바란다면 지역경제개발의 근원인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반대해나서야 하며 시대착오적인 외세의외의 《북북합작공조》를 매달리지 말아야 할것이다. 2. 0.01(이통원) 북남합의들을 리행하기 위한 실천적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금 북남관계가 최악의 국면에 처하고 통일문제해결에서 돌파구가 열리지 못하고있는것은 북남합의가 부추해서가 아니다. 우리에게 온 민족의 총의가 반영되고 내외의 전폭적인 지지행위를 받았으며 실천에서 정당성과 생활력이 파시된 훌륭한 원칙과 합의들이 있다. 력사적인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은 북과 남이 관계개선을 도모하고 조국통일을 이룩하는데서 일관하게 견지해야 할 원칙과 정치, 경제, 문화, 인도의 등 모든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방도들이 다 들어있다. 북과 남의 수뇌분들이 채택한 민족공동의 합의문건들마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백지화되고 당리당략의 희생물로 악용

된다면 당국사이에 합의의 열매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통일에 관심이 있고 북남관계를 개선할 의사가 있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무엇을 자주 내걸고서 아니라 이미 이룩된 북남합의들부터 인정하고 존중하며 리행하는 실천적조치를 취해야 한다. 6.15선언에 활성화되어온 각 분야별, 분과별 협력교류구들이 재가동된다면 구태여 북남당국이 마주앉아 다시 협력의 틀을 짜느라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지 않아도 될것이며 당사자라도 화해와 단합, 통일의 넓은 길을 열어나갈수 있다. 남조선당국이 주장하는 인도주의적사업이나 철도도로건설, 사회협력사업들도 사실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다 반영되어있는 문제로서 선인들이 리행되던 원만한 해결책을 있었을것이다. 남조선당국은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행동으로 온 겨레앞에 관계개선의 진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것이다. 3. 북남사이에서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화해와 단합, 통일을 지향하는 정책들을 제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가야 한다. 북남관계를 개선해나가기 위한 상대방을 자극하고 분신을 조장하는 일체 적대행위를 중지시켜야 한다. 동족을 겨냥한 군사적도발과 전쟁위협, 상대방의 사상과 체제에 대한 부정, 서로에 대한 비방중상은 북남사이에서 분신과 대결의 악순환을 낳는 근원으로 되고있다. 쌍방간에 지속되는 적대행위는 북에도 남에도 리로울것이 없으며 민족의 공동번영과 발전에 이바지되어야 할 막대한 력량

을 헛되이 소모하게 할뿐이다. 이러한 적대적관계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북남사이에서 그 어떤 협력, 교류사업도 제대로 진행될수 없다. 백해무익한 적대행위를 대담하게 종식시키지는것이 우리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당면하여 조선반도정세를 전쟁경계에서 풀이하며 핵전쟁위험을 증대시키는 《슬리프링 가터》반북침전쟁연습을 무조건 중지시켜야 한다. 북과 남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통일을 가로막고있는 온갖 장벽들을 대담하게 허물어버려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북남사이의 접촉과 래왕, 협력과 교류의 길을 차단하고있는 무당한 제도적장벽들을 시급히 철폐하여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신뢰》, 《정확공평》이라는 말에 앞서 맹진과 동족화합의 산물인 콩크리트장벽부터 해체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것이다. 우리는 8.15를 계기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화해와 조국통일의 환로를 열어놓으려는 승고한 애국애족적행위에서 이 근본적이며 현실적인 문제들부터 풀어나갈것을 촉구한다. 다음에는 8.15해방 70년이 되는 해이다. 온 겨레는 8.15해방을 맞던 환희와 기세로 민족의 완전한 자주독립과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성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제의에 적극 화답하여 조국해방 70돐을 민족사에 특기할 조국통일대축전으로 성대히 맞이하려는 온 겨레의 거족적대행전에 합류해나서야 할것이다. 주제103(2014)년 8월 14일 평양

# 창천강계단식발전소 건설 현장에 활력이 넘쳐 울리자



창천강계단식발전소 건설 현장

##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제낀 1000여리 집중수송전투

현장지휘부와 각련단의 지휘관, 돌격대원들이 얼마 전 발전소건설을 하루빨리 마치고는 필요한 각종 자재운반과제를 자체의 힘으로 해결할 목표에 또다시 1000여리 집중수송전투를 성과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공사의 돌파구를 열었다. 경에는 강정을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건설에서 오늘의 전성기를 대변영기로 더욱 고조시킬 력을 창조하고 건설부문의 혁신의 불꽃이 사민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

## 부닥치는 난관을 과감히 박차고

남포시려단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의 투쟁위훈

남포시려단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앞으로 진행할 수 십개의 다리보교를 위한 철근공정투를 조직하고 돌격대원들과 힘을 합쳐 한주일동안에 외닥대 해체되었지만 마음은 개운치 못하였다. 련은 장마를 예견하여 내민 작업이었던 강물이 얼얼한 추위와 고기압이 내리는 날씨에 지속되는 실정에서는 더욱더 어려움을 헤쳐나기 위하여 기본공사를 내밀어야 한다는 단호한 결심을 내리게 하였다. -내자연의 광안앞에 물러선단 우리를 어느 청천강용 사들이라고 부를수 있었는가. 대담하게 모든 력량을 신속히 기동전개시켜 우안지대공사를 다그치자.

## 혁신과 위훈의 불보카

수력설비조립사업소 전투장에서

정을 끝낸 기술자들이 저도모르게 터진 웨칭이 모두의 환성으로 이어져 공사장에 메아리쳤다. 수력구조물건설과 하부설비조립이 동시에 벌어지는 조건에 맞게 기동기차와 연양기에 의한 작업방법을 대담하게 받아들이는 사소한 오차도 없이 발전기실의 주요하부설비조립을 성과적으로 끝낸 것이다. 순간의 담도모르는 공격에서 또 새로운 연속공격이다. 용감공 장은남동무가 력

## 자강도 련 단에서

자강도 련 단에서

자강도 련 단에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협의하고

이 문제를 진지하게 협의하고



자강도 련 단에서



자강도 련 단에서



자강도 련 단에서

# 혁명의 길, 애국의 길로 이어지는 우리의 투쟁과 생활

##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는 혁명의 성산이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백두산과 같은 혁명의 성산을 가지고 있는것은 조선의 자랑이며 조선인민의 더없는 긍지입니다.》

69번째 8월 15일을 앞둔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우리 수령님께서 항일의 혈전 만리, 눈보라만리를 헤치시며 조국을 찾아오신 뜻깊은 기념일을 맞은 우리 인민모두의 가슴속에 간직되어있는것은 무엇인가.

간악한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오랜 세월 무런리속에서 지리리 천대와 멸시만을 받으며 신음하던 우리 인민, 인민의 그 아픔을 한몸에 안으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분은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우리 인민의 얼어붙었던 가슴마다에는 진실처럼 들려오는 백두산정맥이야기가 소중히 간직되였다.

오늘도 사람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라자구판에서의 업적했던 저를 대하여 회고하신 이야기를 잊지 못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는 그 때 우리가 주지않았으면 조선이 다시 소생하지 못한다는 자각을 가지고있었다. 우리가 죽어도 조선을 구원할 사람들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더라면 우리는 라자구판의 눈사태속에 영원히 파묻혀 버는 일이라고 하지 않았을것이다.

우리 수령님께서 그렇게 찾아

자신 조국이었다. 해방의 그 감격과 더불어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더욱 억척같이 자리잡힌것이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었다.

8월 15일과 더불어 우리 인민은 광복노의 명을 벗어던지였다. 우리 인민의 운명과 생활에서 극적전환이 일어났다.

한때기의 땅도 없이 복속까지 잃어 버린 농민들이 해방된 조국에서 땅의 주인으로 되어 《아 장군님 주신 땅...》 하고 노래부르며 씨앗을 뿌리였다.

착취와 억압의 사슬에서 살 인적인 로동을 강요당하던 로동자들이 공장의 주인, 일터의 주인으로 되였다.

해방의 기쁨을 더해주는 로동자, 농민의 아들딸들의 글썽한 소리가 맑고 푸른 하늘가로 울려 퍼졌으며 인민주권만 받들고나가는 녀성들이 우리 힘에 조국터전 날마다 건설된다는 긍지 높은 노래소리까지 새 조국의 방방곡곡에 메아리쳐갔다.

이 모든 행복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품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작수 없고 후대들의 행복도, 조국의 미래도 없다는 것을 눈물겨운 제철을 통하여 실감케 해준 우리 인민이었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칙령자 미제가 이 땅에 전쟁의 불을 질렀을 때 백두산의 장군인신 위대한 수령님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한 사람같이 떨쳐나섰다. 항일의 투사들로부터 들은 백두산시절의 이야기를 실감마다에 새긴 인민군인들은 원수들과의 싸움도 항일유격대식으로 하고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 꾸려나갔다. 선렬들의 그 불굴의 투쟁정신으로 원수들의 화집도 몸으로 막았고 수류탄을 입에 물고 서슴없이 적진에 몸을 던지였다.

주제 39(1950)년 10월 26일 새벽 유령땅에 이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군군인들이 휴식참에 노래를 부르며 장편사시 《백두산》을 읊고 있다는 보고를 받게 되시였다.

군인들이 주먹을 흔들어 열정적으로 읊는 시를 한동안 들으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강개가 깊으신 어조로 얼마나 좋은 시이고, 승리에 대한 신념과 믿음이 없으면 지금과 같은 때에 군인들이 어떻게 시를 읊고 노래를 부르지 못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전화의 나날에도 백두산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의 거동 이였고 백두산정맥이 위인이신 우리 수령님은 천만군민의 태양이시였다. 혁명의 성산과 더불어 신념화 된다는 충절을 안고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전선과 후방에서 한복속 바쳐 영웅적으로 싸워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를 깨버리였다.

전후의 제대미속에서도 우리 인민은 빼앗겼던 나라를 찾아주시고 평범한 인민을 인간존엄의 상상봉에 올려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언덕에 천민들의 하나라도 보답할 맹세를 심장을 불태우며 천리마를 타고 사회주의 강국으로 달려나오셨다.

우리 혁명의 길에 시련이 겹쌓이던 준엄한 년대에 우리 군

대와 인민은 백두의 밑림에서 밝아온 이 아침 우리는 수령의 노래 자랑으로 부른다고 소리높이 웨치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개척해주신 백두산탐사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갔다.

우리 조국땅에 또다시 칙령의 불을 지르려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침략세력을 선군의 총대로 무찌르며 처참히 무너뜨리는 조국의 존엄을 지켜주신 백두산의 아들인 위대한 장군님의 담력과 기상 그대로 닮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신상태는 얼마나 훌륭하냐.

우리 당이 키워낸 무재봉 17명 영웅들중의 한사람인 로영순동무는 시 《어디서나 백두산에 오르기》를 즐겨 읊었으며 자기의 수형에 이렇게 썼다.

《여방가게 피어오 진달래는 아름답게 핀다. 어디 가나 우리당의 품속에서 내가 필 자리 따로 찾지 않으니.》

그런 로영순동무였기에 그는 타래지는 불길속에 서슴없이 뛰어들어 커중현 혁명적조호론현들을 한복속까지 구원할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오늘도 우리 인민의 마음은 절세의 위인들의 불멸의 발자취가 뜨겁게 어려있는 백두산자리에 길이 빛내려려는 불라는 결의를 다시금 굳게 다지면서 경애하는 현수님의 명도따라 이 땅위에 기어이 천하일강국을 일떠세우고 김일성장군,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영광을 만방에 떨칠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고있다.

본사기자 현정철

이 땅, 이 하늘아래에 통일되고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로 단상행군의 나날 항일유격대의 자랑을 불러오는 결의를 다지하였다.

경애하는 현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백두산자리에로 탐사행군대교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도 탐사행군의 나날 항일유격대식으로 살며 생활하였다. 대오마다에서는 《백두산을 닦자!》, 《백두의 혁명정신》이라는 웨침들이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그들은 항일혁명선렬들의 발자취를 따라 행군하면서 투사들의 강한 신념과 의지를 체득하였으며 눈을 깔고 누워자면서도 해방전선에서 구려본 투사들의 열화같은 조국애와 혁명적투쟁의 열기를 가슴속까지 새겨안았다.

그렇다. 우리 인민의 생활은 조국해방, 조국수호, 조국번영의 길로 걸어온 지난날들이 어찌했던 것일까.

리창길동무의 가정은 10여년 전부터 인민군대원호사업에 뜨거운 애국의 마음을 바쳐왔다.

가정에 넘치는 향기

열렬한 조국애를 지니고 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고있는 사람들속에는 강동군 송가로동자구 리창길동무의 가정도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애국은 조국에 대한 헌신이고 투신입니다.》

지난 4월 어느날 저녁이었다.

하루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쁨을 안고 집으로 들어선 리창길동무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며칠째 앓고있던 아들 판성이 어머님과 함께 백두산정맥을 바쳐갈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그때로부터 이들은 지원을 자를 마련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더 잘 꾸리기 위한 사업에 열차나 신 건설자들에게 보내주었다.

부모가 걷는 애국의 길을 함께 걷는 나날속에 자식들의 가슴마다에도 조국애의 소중한 씨앗이 움터기 시작하였다.

판성은 동생인 현화와 함께 토끼도 더 많이 기르고 건설자들을 고무하는 편지도 쓰며 온

가정동무의 가정

끊임없는 전진시찰의 길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명도를 충정으로 받들 믿음 안고 리창길동무는 탄광일터 바쁜 속에서도 집집순우리들 더 크게 늘리겠다. 안해인 박은숙네성도 받들고자 장갑과 어깨받치며 등 군건설자들에게 보내줄 원호물자들을 한가지라도 더 마련하기 위해 애써 노력하였다. 이렇게 마련한 집집순들과 원호물자들은 그들은 해마다 군건설자들에게 보내주었다.

3년 전 12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뜻밖에 서거하시였다. 청천벽력같은 비보에 접하게 된 리창길동무와 가족들은 리지못한 한 가슴을 참처럼 정할수 없었다. 그날 저녁 이들은 한 자리에 모여 앉아 어머니장군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더 잘 모시는 사업에 모든것을 바쳐갈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그때로부터 이들은 지원을 자를 마련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더 잘 꾸리기 위한 사업에 열차나 신 건설자들에게 보내주었다.

부모가 걷는 애국의 길을 함께 걷는 나날속에 자식들의 가슴마다에도 조국애의 소중한 씨앗이 움터기 시작하였다.

판성은 동생인 현화와 함께 토끼도 더 많이 기르고 건설자들을 고무하는 편지도 쓰며 온

본사기자

국의 방성이 굳건해 야 한다. 하면서 최전선으로 떠나보냈다.

세 자식모두를 조국보위초소에 내세운 인민군후방가족들이 들부부는 본진혁명일무수행과 인민군대원호사업에 언제나 앞장서고있다.

로동동원원 염금란

이끄는 그는 언제나 가정보다 본조농사, 본조원들의 생활을 먼저 생각한다.

그는 매일 본조원들의 가정을 찾아가 생활현황을 알아보고 벨감, 무업아구리 등 등치기되는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어 그들로 부터 본조농사에 전심전신하게 하고 있다. 특히 몸이 약하거나 앓는 본조원들을 위해 효능 높은 약재와 입맛을 돋구는 음식감들을 마련하여주어 그들이 건강할 몸으로 농사일을 착실히 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있다.

박순옥동무의 이런 정열적인 노력이 있어 본조는 해마다 알곡생산계획수행에서도 모범이고 회복되고 단합된 본조로 자랑될치고있다.

로동동원원 최창철

## 제 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할 국가종합팀 남자축구검열경기가 있었다



【평양 8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은 나라에 체육열기가 전례없이 높아지는 속에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할 국가종합팀 남자축구검열경기가 13일 김일성경기장에서 진행되였다.

경기장은 국제경기마당에서 선군조선의 영예를 만방에 떨쳐갈 애국의 열정을 안고 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켜가고있는 축구선수들의 경기를 보기 위해 모여온 수많은 관람자들이 채워넣어졌다.

황병서동지, 최룡해동지와 김영훈체육장, 판계부문 일군들, 평양시안의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 축구호기자들이 경기를 보았다.

경기경기는 국가종합팀과 기관차팀이 참가하였다.

지난 시기 국제국내경기들을 통하여 우리 인민들과 친숙해진 제능있는 선수들과 견도유망한 신진선수들을 망라한 국가종합팀과 기관차팀사이의 축구경기는 시작부터 치열한 공방전으로 이어졌다.

랑팀 선수들은 당의 주제적인

구성시체신소 우편통신원 문화운동은 사람들속에서 우리 우편통신원으로 불리우고있다.

우리 당출판물들과 우편물들을 한시도 지체함이 없이 인민들에게 전달하는 길에서 생을 마친 남편의 뒤를 이 스스로 우편통신원이 된 그는 인민을 위한 복무의 길을 성실히 걸고 또 걸고있다.

우편통신원으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안고 그는 인민들에게 새 소식을 한시라도 빨리 알리주기 위해 애써 노력하였다.

당의 신임과 기대를 가슴뜨겁게 간직하고 그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중단함이 없이 제시간에 당출판물들과 우편물들을 신속정확히 전해주기 위해

## 승고한 직업을 안고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치고있다.

지난해 정초 레넨에 불수 없이 많은 눈이 내려쌓여 길마저 찾을수 없었으나 그는 눈을 치며 당당자구의 인민들에게 당출판물과 우편물들을 제때에 전해 주었다.

누가 보지않던, 알아주지않던 많은 일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는 그를 두고 사람들은 쉽게 그를 우편통신원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다.

로동통신원 안용범

우시군 가화협동농장 제2작업반 1분조장 박순옥 동무를 두고 본조원들은 우리

본조장이라고 부르며 따른다.

그는 본조장으로 일하는 첫째 아들 박순옥을 맡아보고 벨감, 무업아구리 등 등치기되는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어 그들로 부터 본조농사에 전심전신하게 하고 있다. 특히 몸이 약하거나 앓는 본조원들을 위해 효능 높은 약재와 입맛을 돋구는 음식감들을 마련하여주어 그들이 건강할 몸으로 농사일을 착실히 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있다.

박순옥동무의 이런 정열적인 노력이 있어 본조는 해마다 알곡생산계획수행에서도 모범이고 회복되고 단합된 본조로 자랑될치고있다.

로동동원원 최창철

##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총련 사이다마현상공회대표단 경모의 정 묘시

민주애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13일 총련 사이다마현상공회대표단이 경모의 정을 묘시하였다.

## 지식인들에게 국가학위 학직 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최첨단과학기술을 힘있게 펴며 강성국가건설을 다그치는데 크게 이바지한 지식인들에게 국가학위학직이 수여되였다.

수여식이 13일 민주애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김용진대각부총리, 지식인들이 수여식에 참가하였다.

국가학위학직수여위원회 결정이 전달된 다음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강인식, 사회과학원 소장 고철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구사 권재성에게 후보원사칭호가 수여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학장 현정길, 강좌장 최영수, 연구사 윤종철,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강좌장 송애국, 김책공업종합대학 박사인원장 김순명, 강좌장들인 김윤길, 김재영, 장철구평양공업대학 연구사 리광명, 평양

대표단원들은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 주제적책의 교통운동의 강화발전을 조국통일을 위하여 고헌평생을 바치신 절세위인들의 고귀한 혁명정신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며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려왔다.

연구회대학 부학장 조명철 등이 교수의 학직을 받았다.

김일성종합대학 강좌장들인 박종호, 리영남, 교원들인 박은순, 김영일, 김형식, 김광연, 연구사들인 백학복, 리영남, 윤성진,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교원 이의 변경조, 김형직사범대학 강좌장 차기철, 교원들인 김용철, 권봉호, 김책공업종합대학 부학부장 리복규, 강좌장 현성철, 부강좌장들인 한정수, 한석현, 실장 김병훈, 교원들인 박순수, 김광명, 백인철, 홍정수, 연구사들인 리광진, 신옥철, 평양건축종합대학 강좌장 리철희, 인민경제대학 강좌장들인 임영찬, 박성남, 평양기계대학 실장 김수만, 신의주의학대학 강좌장 김관, 청진광산속대학 교원 리정철, 고려수산관 강좌장 윤명렬, 평양통계전문학교 강좌장 정순철, 사회과학원

## 피뢰군부깡패들이 우리의 평화적어선을 향하여 또다시 무차별적인 포사격을 가하는 엄중한 도발을 감행하였다

### 조선인민군 서남전선군사령부 보도

8월 12일 피뢰군부깡패들은 서남해상에서 정상적인 어로작업을 하고있던 우리의 평화적어선을 향하여 무차별적인 포사격을 가하는 엄중한 군사적도발을 감행하였다.

이 무모한 도발행위로 하여 가족이나 친예한 이 수역의 정세는 또다시 한지않고 예측할수 없는 폭발전야의 긴장국면으로 치달고있다.

사태의 심각성은 이 무지막지한 해적행위의 군사적도발행위가 주도세력, 함흥분원 부원장 장길룡, 농업과학원 실장들인 배성남, 리승조, 연구사들인 리형일, 최승호, 교육위원회 고등교육정책과학 동영애, 특혜대상 기술심사의 소 심의원 현영길, 해운실업 연구소 부소장 리영민, 조선자연보호령명 기자 정종덕, 단련평업연구소 실장 최용천, 수재부수산업소 지배인 동기명 등에게 박사학위의 학위가 수여되였다.

이러 결의토론들이 있었다.

수여식에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동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울리는 명세문이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 전국기초과학부문 과학기술발표회 진행

【평양 8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전국기초과학부문 과학기술발표회가 11일부터 13일까지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주최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진행되였다.

기초과학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교원, 연구사, 박사인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출한 550여건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전진과학기술

을 빨리 발전시켜 경제강국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한 기초과학부문의 연구사업에서 이룩한 최신행과와 경험들을 소개하였다.

수학, 물리학부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 평양기계대학, 메이저부에서는 국가과학원 레이저연구소, 지리학부에서는 국가과학원 지구환경정보연구소 등의 단위들에서 발표한 논문들이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발표회에서는 입선자들에게 증서가 수여되고 시상하였다.

